

先 선별·後 전국민... 당정, 4차 지원금 절충안 검토

코로나 3차 확산 길어져 피해 계층 신속·추가 지원 필요 지급시기 다음달로 앞당기고 선별 대상 확대 방안 모색

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만 넣어 피해 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당에서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 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발언들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필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청 다음날인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이 이런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더 두터운 지

원, 사각지대 보강' 발언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달아오르는 민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리얼미터 지지율, 박영선 26.2%·우상호 7.7%... 오늘 TV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러 주자들은 저마다 지지세를 과시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박영선 경선후보가 우위를 점한 가운데 우상호 경선후보가 추격을 하면서 '경선흥행'에 성공할지 여부도 관심 포인트다.

14일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TBS·YTN 의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후보는 26.2%로, 여야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말 1차 조사보다 13.1%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우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4.4%를 기록했던 1차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박 후보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범여권 후보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32.8%, 우 후보가 11.7%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두 주자의 경선 전략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14일 "초반 지지율은

차이가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서울의 미래 비전과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진 박영선'을 콘셉트로 자신의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와 구독경제, 디지털화폐 등의 구상을 알리며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우 후보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되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박 후보의 높은 인지도에 고전했지만,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민주당 후보로서의 적통성을 부각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설 연휴 기간 박 후보는 TV 출연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후원회장인 문화상 전 국회의장도 만났다. 우 후보는 동대문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고 전날에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다.

두 후보는 15일 MBC, 17일 연합뉴스TV에서 TV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달 셋째 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겸한 정견발표가 예정되었다. 민주당 경선투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나흘간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시장 나눠먹기 민망”

민주, 오세훈·나경원·안철수 서울시 공동운영 방침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오세훈·나경원 경선후보가 후보 단일화 상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1년 남짓한 임기를 수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인지, 동작을 나경원·광진을 오세훈·노원병 안철수로 시장을 나눠서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것이지, 야권 후보자들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가 아니다"라면서 "가능하지도 않을 실체 없는 공동운영 제안은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도 내 밥그릇 하나는 제대로 챙기겠다'는 얄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유능한 한 명의 선장이지, 무능한 여러 명의 선원이 아니다"라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권, 재보선 후보발 정계 개편론

정권 교체 위한 재편 필요... 나경원·오세훈 "헤쳐 모이자"

야권에서 4월 재보선 후보발(發) 정계 개편론이 분출하고 있다.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통합에 의한 대선 승리'라는 시나리오의 초안이 모양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경선후보는 14일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가 시너지 낼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되면 범우파 연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나경원 후보도 '자유주의 상식 연합' 구축을 제안하며 사실상 정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후보는 이날 무소속 급태섭 후보와 공동으로 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까지, 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 진중권·서민 교수까지도 같이하는 연합"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변화·개혁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금후보도 "선거뿐 아니라 선거를 지나서도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

다"며 동의를 표했다.

가장 먼저 '연립 지방정부 수립'을 제안했던 안 후보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단일화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정계 개편 주장은 공교롭게도 야권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다소 밀리는 결과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해도 선거 승리를 담담하게 어렵게 되자 자연스럽게 야권 통합의 정계 개편 구상이 동시다발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번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력에 대한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간판'으로는 대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일각에서는 재보선 직후 이어질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시선도 있다. '포스트 김종인'을 겨냥한 당 안팎의 물밑 알력이 후보들의 공개 발언에 투영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옛 친이, 친박계와 총선 탈당파 등 김종인 체제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세력들이 대선의 전열 정비를 명목으로 김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후 '새 판'을 모색하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